

세종-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원인 규명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·조사 착수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2월 25일 세종~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9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거더 붕괴사고와 관련하여,
 -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“건설사고조사위원회”(이하 “사조위”)를 구성·운영한다고 밝혔다.
 - * (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) 국토교통부장관, 발주청 및 인·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 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 가능
-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·학·연 중심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,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.
 -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,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.
 - 사조위는 토목구조 전문가인 강릉원주대학교 양은익 교수를 위원장으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, 2월 28일부터 약 2개월*간 사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.
 - * 사조위의 운영기간은 사고조사 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사조위는 2월 28일(금) 오전 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일정 등 향후계획을 논의하고, 경기남부경찰청 주관 관계기관 합동 현장감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.
 - 이후 현장조사는 물론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.

국토교통부 (행정지원)	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	박동주 (044-201-3573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	이정훈 (044-201-4593) 서경원 (044-201-3586)
국토안전관리원 (위원회 간사)	건설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	책임자	실 장	백광섭 (055-771-1781)